

익산시, 올해 사회조사 오늘부터

8개 분야 52개 항목 1005개 표본가구 대상 조사 작년 중학생 사교육비 34.8만원 가장 높게 나타나

익산시가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익산시(전북)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회조사는 사회구조 변화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등 8개 분야 52개 항목으로 1,005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만5세 이상 모든 가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사자료 집계 및 내용 검토를 거쳐 최종결과는 12월에 확정돼 전북도

청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사회조사는 7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공교육비는 대학교 및 대학원생이 53.9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 북평균 82.8만원보다 작게 소폭됐다. 사교육비는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34.8만원(전북 38.95만원)로 전체 학생 그룹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육 분야별 참여율은 학원수강이

78.8%, 방문학습자 26.5% 유아원 14.6% 과외, 인터넷 및 통신 강좌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에는 자발적 학습 고치를 위한 문화체험 기회확충이 36.8%로 가장 높으며 방과 후 및 토요일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상담프로그램운영 외국어 교육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익산시의 평생맞춤 교육 복지 도시로서의 시장방향과 맞물려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2017년도에 이어 올해 9월중 익산교육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익산시 교육발전의 위

한 초·중·고 청년 다문화 등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자유토론을 통해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등 익산시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를 향해 더 나아가 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전반적 만족도는 53.9%로 전북 평균40.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쾌적성, 정시성, 친절성, 편리성 등 4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 정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하림 앞 농로 하림 직원들 차량 뒤엉켜 주민민원 대상

승용차 농로까지 완전히 장악해 지역주민 분통 빨간색 차선규제봉까지 설치했으나 '무용지물'

예전에는 한적하기만 했던 시골 마을길이 승용차들로 뒤엉켜 민원대상 이 되고 있다. 특히 승용차들이 농로까지 완전 장악해 이 지역 농민들이 분통을 터트릴 지경이다. 이들 차량 대부분은 닭고기전문회사 '하림'의 직원 차량들이다. 지난해 부터 하림이 기존의 익산시 공장 아래에 새 공장을 신축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직원들이 공장 인근 마을과 농로에 무차별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 출퇴근시간대에 이르면 하림공장 입구에 있는 '석천삼거리' 일대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 지역주민들은 "하림 직원들 차량들이 마을 길과 농로에 엉켜 있어 불일 있어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한 바퀴 돌고 운전을 해야 한다"면서 "남의 동네에 차량을 합부로 주차해 짜증 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농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농로에 멋대로 주차해놓다 보니 경운기나 트랙터 등 정작 농로로 다니는 농기계 등이 통행을 못하고 있어 농사일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더욱이 주차하지 말라고 가운데에 '빨간색 플라스틱 차선규제봉'까지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 됐고 일부 차선규제봉은 아예 뽑히기까지 했다. 주민들은 "향토기업을 자처하는 대기업이 이웃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당장 개선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림 관계자는 "주차문제로 불거피 하게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 죄송하다"며 "올 9월 공장이 준공되고 주차타워 설치도 마무리 되면 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교통 혼잡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수송동 복지동장단, 취약계층안전지킴이 역할 '독특'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군산 수송동 복지동장들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지역 내 취약계층 세대들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폭염대처 요령 및 복지서비스 안내하는 활동을 실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수송동 복지동장 22명은 폭염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들과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복지사각지대 우려 대상가구 61세대를 직접 방문해 폭염대비 안전 수칙과 인근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방문 세대가 경제·의료 위기 상태로 확인될 경우 발견 즉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을 연계해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 지원하도록 하고 있

다.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천사교(천원 비스 안내하는 활동을 실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천사교(천원 비스 안내하는 활동을 실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천사교(천원 비스 안내하는 활동을 실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천사교(천원 비스 안내하는 활동을 실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수송동 복지동장들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지역 내 취약계층 세대들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폭염대처 요령 및 복지서비스 안내하는 활동을 실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 심의방안 논의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민)가 지난 16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진행한 제3차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예결위는 집행부로부터 한국GM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일자리 창출지원, 관광기반편익시설 확충 등 각종 현안사업과 함께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 사업의 증액내역 및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추경예산 심의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8대 들어 처음 열리는 추경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 대비 예산편성 심의 관련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 방안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열렸다. 이번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시 의원들의 전문적 지식습득과 시정정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우민 예결위원장은 "군산의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산안을 더욱 철저히 심사해 비효율적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을 위한 시민행복이 우선되는 예산이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평생교육도시 군산, 8월 새만금아카데미 강좌운영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미래사회 문화시민 역량을 갖춘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새만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이리랑 전문화가 두시영 이리랑 조형미술연구소 대표의 '힐링 이리랑 군산 이리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서양화가 아닌 이리랑 화가'를 자칭하는 두시영 화백은 오직 이리랑만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민족 미술과 민족 애환에 관심이 많은 두시영 화백은 이리랑에 빠져든 이후 정선 밀양 등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이리랑 가락 속에 녹아있는 민족의 삶과 숨결을 듣고 이를 회화로 표현했다. 한국미협작가이면서 민족미술협회 서울지부 대표를 지낸 두 화백에

게 이리랑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한국 근현대사의 수없이 아픈 현장들을 보면서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위로와 신명이 있으며, 사람들과 이리랑 가락으로 대화한 시간들을 현대 회화로 캔버스에 풀어 놓았다. 이번 강연을 통해 두시영 화백은 캔버스에 투영한 진정한 군산의 이리랑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군산의 이리랑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내달 3일부터 현장행정통해 민원 해결

익산시가 주민과의 소통간담회 등 그간 접수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하기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에 걸쳐 예산부서, 사업부서, 읍면동장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6개반 45명)을 구성해 합동 현장행정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행정 대상사업은 마을안길 농로포장, 농배수로, 보안등 하천 정비, 공원시설물 CCTV, 유개승강장, 하수도 등 총 10개 분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내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주민불편 사항과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며, 단일사업 중 사업물량이 많아 일시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총 1,242건에 255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리틀야구단 수료식 열려

익산시 리틀야구단은 지난 18일 정현울 익산시장과 이선호 익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을 비롯한 선수 및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수료식을 열었다. 또한 올해로 창단 5주년을 맞는 익산어메이징 여자야구단의 기념행사도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단 8년째를 맞는 익산시 리틀야구단은 올해 수료생 8명중 7명을 엘리트 야구부로 진화시키며 지금까지 총 10명의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지역 야구인재 육성의 선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 NCD이노스페 4강, 5월 제14회 도미노퍼자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준우승을 비롯 6월에 전라북도협회장기 리틀야구대회 우승, 전국 메이저대회인 2018 U-12 전국유소년 야구대회에서 8강의 성적을 거둬으로써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유소년 야구단으로 성장했다. 익산어메이징 여자야구단은 올해 5월 익산시장이 전국여자야구대회에 참가해 4위에 오르며 등 부족한 선수진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며 미래를 위한 합찬 도약을 계속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